

<p><b>주제</b></p>	<p><b>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p>
<p><b>가이드</b></p>	<p><b>진로:</b> 식품생명공학</p> <p><b>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 코칭 프로그램에서 워드 마스터와 그램 마스터로 활동함. 읽기 자료의 필수 어휘와 어구, 중요 어법과 구문을 수업 전 칠판에 정리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촉진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협력 학습의 범위를 확장함. 지문 속에 등장한 '뇌의 시간지각' 개념을 확장해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발표함.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 용어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등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급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냄. 뇌의 지각에 따라 감각은 주관적으로 달라지기에 사람의 미각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함. 우리가 받는 인상이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주관성이 가미되어야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함. 또한, 박테리아의 소통과 관련된 글을 학습 후 박테리아 같은 세균도 소통하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갖고 '박테리아가 소리를 이용해 소통할까?'라는 주제로 발표함. 개요 작성에서 글쓰기까지 과학적 근거가 담긴 해외자료를 활용해서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인 점이 인상적임. 특히 신호전달 분자를 이용해 소통하는 '전사적 양성 피드백 루프'를 소개하며 세포들도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발표한 점이 돋보임.</p>